

[바둑]

한국기원·바둑기자단 선정 바둑 10대 뉴스

한국기원과 바둑기자단은 26일 '2008년 바둑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기자단들의 투표로 선정된 10대 뉴스는 이세돌 9단의 1인자 독주태세와 강동윤 8단의 맹활약, 조훈현 9단의 2천500국 최다대국 달성 등 다양한 화제들로 채워졌다. 다시다년했던 2008년 과연 한국 바둑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세돌 12개월 연속 독주



올 해 바둑계에서는 이세돌 9단의 이름이 가장 많이 호명됐다. 이세돌은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제20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또 제13회 LG배, 제13회 삼성화재배 결승 진출 등 세계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제52기 국수전, 제13기 바카스배 천원전에서 타이틀을 다루는 등 국내기전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14개월 연속 국내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동윤 '바둑 올림픽' 금메달

강동윤 8단이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게임즈 남자 개인전 금메달 및 제10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최강전 5연승 등 세계대회에서 돋보인 성적을 냈다. 또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제13기 바카스배 천원전에서 타이틀을 다루는 등 국내기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강동윤은 하이원배 명인전 결승 진출로 국내 49번째 9단 승단에 예약해 놓았다.

박지은 국내 여자기사 첫 入神

여자기사 중에서는 박지은 9단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제1회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에서 박지은이 루이아니웨이 9단에 2-1로 승리하며 국내 여자기사 최초로 9단인 입신(入神)에 올랐다. 박지은은 개인적으로는 제2회 정관장배, 제1회 대리배에 이은 세 번째 세계대회 우승이기도 했다.

이창호 부진 탈출 '제2 전성기'

지난해 부진했던 이창호 9단이 국내의 기전에서 연연한 상승곡선을 그려며 부활했다. 지난해 54승 31패, 승률 63.53%의 저조한 성적으로 다승과 승률 '베스트 10' 안에 들지 못했던 이세돌은 올해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세돌은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와 제7회 승란배 세계바둑선수권 결승에 진출했고 후지쯔배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왕중왕전, 십단전 우승 등을 출전해 64승 22패, 승률 74.42% (18일 현재)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영남일보, 한국바둑리그 2연패

'젊은 사자군단' 영남일보가 지난 13일 막을 내린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종3차전에서 신성건설을 3-2로 제압하며 종합전적 2승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사상 첫

2연패였다. 지난 4월 개막돼 장장 9개월여의 일정을 모두 마친 이번 바둑리그는 총규모 35억원이 상금이 걸린 대형기전으로 총 8개팀이 우승컵을 다했다.

조훈현 통산 최다대국 신기록



조훈현 9단이 지난 8월10일 한국바둑리그에서 이영구 9단과의 대결을 통해 통산 2천500국 달성 신기록을 세웠다. 또 최다대국 1위 행진도 계속했다. 지난 1962년부터 프로기사의 길을 걸어온 조훈현은 18일 현재 2천517국을 기록해 2천259국을 둔 2위 서봉수 9단과 258국 차이를 통산 최다대국 부문 1위를 질주 중이다.

홍성지, 생애 첫 타이틀 획득

홍성지 7단이 이세돌을 2-1로 꺾고 제4기 한국불가 정보대 프로기전 정상에 오르며 생애 첫 타이틀 획득했다. 지난 2001년 12월 입단한 홍성지는 2006년 제40기 왕위전과 2008년 제19기 기성전 4강에 올랐지만 본격기전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바둑, 세계무대 진출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 게임즈에서 북한의 조대원 아마 7단이 오픈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경주 아마 3단은 일본의 여류기사 우메자와 유카리 5단을, 김유미 아마 3단은 한국의 박지연 초단을 꺾었다. 북한의 남녀 참가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전세계 바둑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민진, 정관장배 우승 견인

이민진 5단이 2년 연속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에서 한국의 우승을 결정짓는 기염을 토했다. 5회 대회 5연승으로 '광저우 신화'를 이룬 이민진은 6회 대회에서도 3연승으로 한국팀 우승을 확정하며 '정관장의 여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세돌·조한승 기부 동참

제20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에 동반 결승 진출한 이세돌과 조한승 9단이 결승 전날 우승상금(250만원)과 준우승 상금(50만원) 전액을 쓰촨(四川)성 지원 피해 상금으로 쾌척해 찬란한 감동을 선사했다. 입단동기인 이들은 세계 바둑계 최초로 우승, 준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프로기사로 기록 됐다.



윤준상(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연남뉴스

윤준상, MVP 영예

한국바둑리그 시상식, 이세돌 제쳐

영남일보의 윤준상이 '한국바둑리그'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윤준상은 23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시상식'에서 MVP 수상자로 밝혀 1천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다. 팀 주장 김지석 4단이 정규시즌 8승5패의 평범한 성적을 올린 가운데

10승4패로 사실상의 주장 역할을 한 윤준상은 챔피언결정전에서도 맹활약하며 팀 우승을 견인했다.

MVP 및 신인상, 감투상은 기자단과 팬들의 온라인투표로 이뤄졌는데 윤준상은 온라인투표에서는 지명도에서 앞선 제이화재 이세돌에게 밀렸으나, 기자단으로부터 몰표를 받으며 종합집계에서 1위에 올랐다. /연남뉴스

한·중 반상의 제왕들 온라인 대결 총 출동

'바투' 한중 동시오픈 기념 이창호·창하오 등 한판대결

조훈현, 유창혁, 이창호, 구리, 창하오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간판 프로기사들이 온라인에서 한판 대결을 펼친다. 온미디어는 바둑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략게임 '바투'의 한중 동시 오픈을 기념해 한국과 중국의 프로기사를 초청한 바투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5일 시작된 이 대회는 총 7주간 진행되며, 온미디어의 바둑TV와 온게임넷을 통해 중계된다.

한국에서는 조훈현, 유창혁, 이창호, 박지은 등이 초청선수로 출전하며 중국에서는 랭킹 1위인 구리와 창하오 등이 초청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또 신인기사들 중에서 선발전을 뚫고 올라온 허영호, 박진술, 김형주, 한상훈 선수 등도 초청 선수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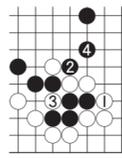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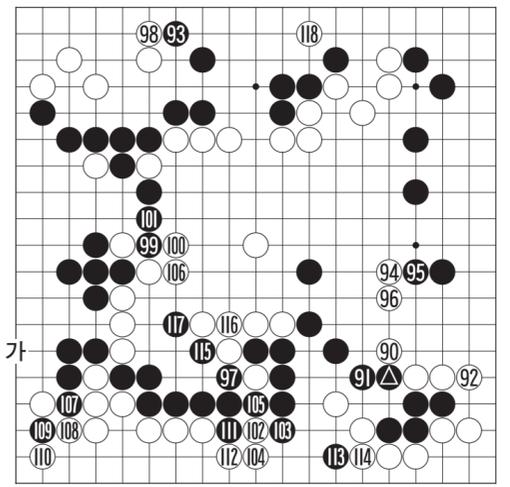
프로기사들이 온라인 바둑대회에 초청 선수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훈현 9단은 "한국에서 바둑 열풍이 식어 침체기에 있는데 바투 기반 온라인 게임이 개발돼 젊은 층에도 바둑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투는 이플래이온이 개발한 전략게임으로 기존 바둑판보다 훨씬 적은 11줄의 소형 바둑판에서 바투 실력을 겨루는 게임으로, 번수가 많고 속도감이 있어 바둑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연구생 출신다운 끝내기 일반부 결승 6보 (90~118) 백 송홍석 7단 (경기) 흑 이상현 6단 (서울)



<참고도>

92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것도 빼어려운 점. 만약 이 수로 '참고도'의 백 1로 단수치게 되면 당장 흑 2로 끊어버린다. 3으로 흑 넉점을 잡아봐 흑 4로 지킨 수가 워낙 커서 백이 망한다.

흑 93으로 좌상측 끝내기를 서두른 것은 고수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곳이다. 그러나 이 수로는 96에 두어 우편을 지키는 것이 무난했다. 성난 송홍석이 백 94로 모자를 씌워오자 부자가 된 이상현이 겁을

내기 시작한다. 우선 흑 95로 응급처치를 해놓고 나서 97로 백 한점을 잡아 흑 대마의 삶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흑 93으로 우편을 지켰더라면 이런 수는 두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백 98로 지킬 때 흑 99는 흑의 권리가 보장되었던 맛좋은 끝내기며 흑 107로 나가 109로 끊어둔 것이 의외로 단순한 수순이다. 이 수를 교환해두지 않으면 백이 '가'로 미끄러져 가는 끝내기가 남는다.

흑 117도 흑 대마의 삶을 확인하는 맥점이다. 연구생 출신다운 빈틈 없는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백 118은 무슨 뜻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장수 9단, 생애 통산 7번째 연간 50승 달성

장수 9단이 생애 통산 7번째 연간 50승을 달성했다. 장수는 지난 18일 열린 제64기 일본 본인방 리그전에서 수야오귀 8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1승16패로 2008년 공식대국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일본기원에 따르면 연간 50승 이상을 달성한 기사 랭킹가운데 장수 9단이 2002년 70승 14패를 기록한 것이 최다승 기록이며, 장수 9단은 생애 통

산 7번째 연간 50승을 돌파했다. 이는 야마자키 게이코 9단의 통산 6회, 하나나오기 9단의 통산 4회, 다카오신지의 통산 3회 등의 연간 50승 기록을 뛰어 넘은 기록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한편 장수는 올해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명인, 왕좌, 십단, 기성전을 쓸어 담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正心 正親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호남방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H)11-608-5221

대인동업실부동산 (H)223-1140, (H)211-802-2532